



조화로운 색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환경 만들기

도시에 색을 입히다

서울의 거리를 떠올리면 회색 콘크리트 빌딩이 먼저 생각나고, 색채나 크기의 조화 없이 난무한 무질서한 간판들이 연상된다. 공공 디자인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국내 도시 미관의 실태와 색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든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자.

에디터 박지민 사진 (NOBLE ASSET)

서울시가 작년 4월 23일, 공공 디자인 정책의 전환과 전면적인 도시 디자인 개조 사업을 총괄할 '디자인 서울 총괄 본부'를 발족하고 서울대 권영걸 교수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머물렀던 서울의 도시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은 공공 장소의 다양한 설비와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을 말하며, 여기에는 건축물을 비롯해 광고, 교통 표지, 정류장,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상의 여러 시설들이 포함된다. 과연 보기 좋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공공 디자인은 어떤 것일까?

Less is More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색채다. 특히 도시 환경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건축물과 함께 어우러져 도시의 미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색채 계획이 요구된다. 색채가 잘 사용되면 도시 환경이 정돈된 모습으로 보이며, 맛있는 도시 환경에 장식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







3

시 환경에 쓰이는 색채는 너무 화려하기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이뤄 지역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고, 이는 도시를 알리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색(Local Color)은 지역성(Locality)을 반영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공통된 생활 양식, 또는 선호하는 색을 말하고, 그 도시를 나타내는 분위기와 정체성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이름답기로 유명한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말한 'Less is More' 처럼 자극적이고 다양한 색보다는 적지만 다채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색채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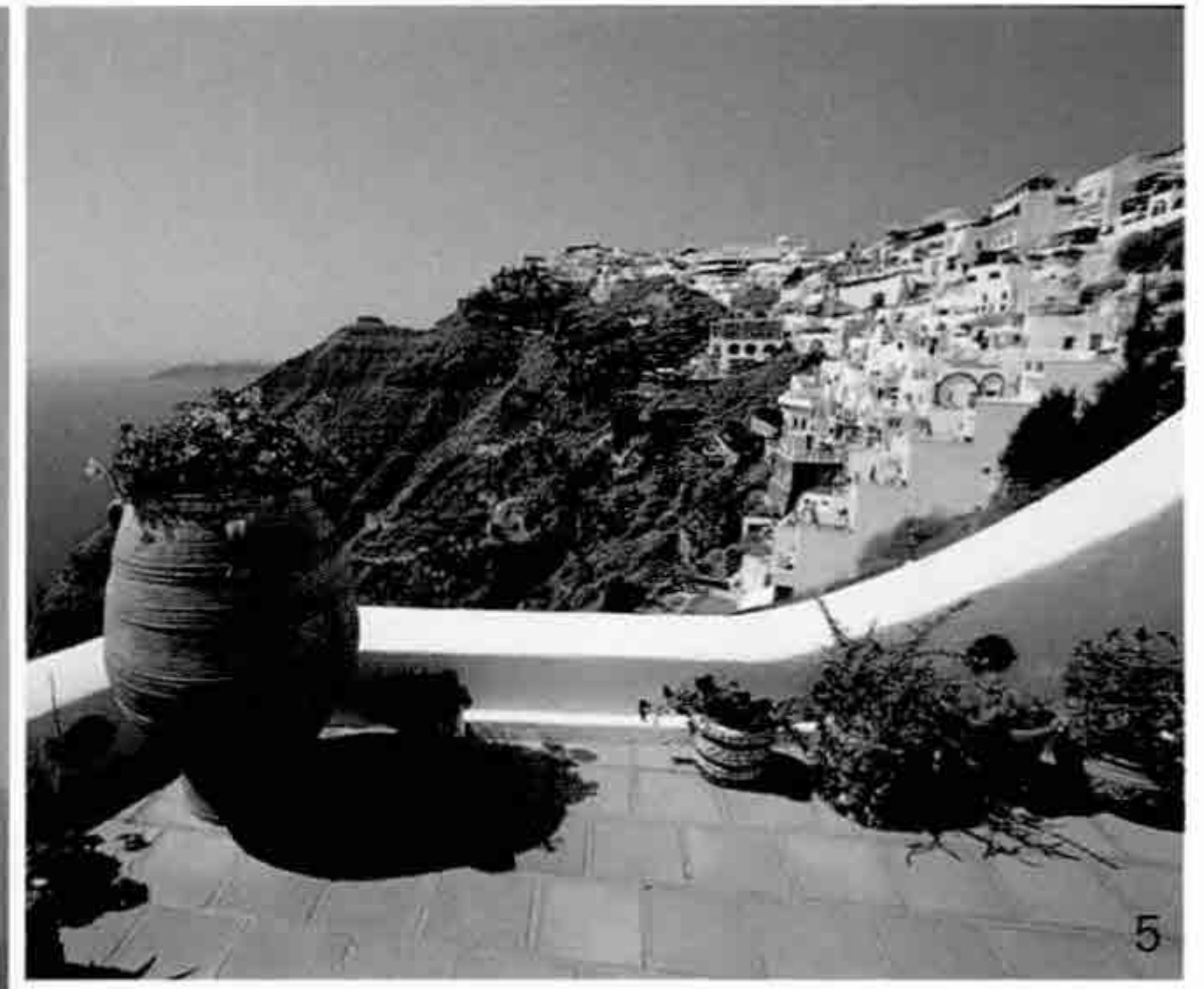
색으로 표현되는 도시

도시 환경의 조화로운 색채로는 단연 유럽이 으뜸이지만, 가까운 일본 역시 공공 디자인과 색채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본은 1971년 요코하마시(市)에 경관 디자인과 관련된 도시 디자인실을 설치하는 등 이미 앞선 공공 디자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세계적인 항구 도시를 목표로 하는 요코하마항과 시미즈항은 일정한 색채 계획과 건물의 높이를 맞추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시즈오카시에 위치한 시미즈항은 용도에 맞춰 각각 고유한 색채를 적용해 기능성을 더욱 높인 사례로 배경에 후지산이 있고 해안에는 숲이 있어 가장 아름다운 항만으로도 손꼽힌다. 시미즈항이 지금처럼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항만으로 거듭난 것은 1992년부터 실시한 항만 색채 계획 덕분이다. 심볼색, 기본색, 악센트색, 액세서리 색으로 구분된 색채 계획은 항만을 편안하고 독창성 있게 바꿨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도시임을 감안해 아쿠아블루와 화이트를 심볼색으로 정해 대표적인 시설물에 사용했다. 그 결과 시미즈항은 항만 색채

계획으로 1998년 일본건설기술협회상(Japan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Award) 수상을 시작으로, 2002년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시미즈8경'에 뽑히는 등 여러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유럽으로 가보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프랑스 파리의 도시 환경에서는 그들의 이념이 담긴 고유한 색채를 엿볼 수 있다. 파리의 전반적인 색채는 어찌면 무미건조할지도 모르지만, 곳곳에 프랑스의 국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레드·블루·화이트의 색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만든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로 철골과 유리가 주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파리의 느낌과 맞지 않는다는 건립이 반대되기도 했던 건축물이다. 그러나 현재는 비비드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색채가 단순한 미적인 용도를 넘어서 실내의 전선이나 수도관 등에 각각 다르게 사용됨으로써 기능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대식 건물이 모여 있는 라데팡스 지역도 전체적으로는 단일색인 그레이 또는 무채색으로 되어 있으나, 단조로움을 피한 다양한 형태와 적절하게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레드 같은 색채 덕분에 도시 미관이 더욱 돋보인다.

이탈리아에 가본 사람은 로마의 콜로세움, 판테온, 트레비 분수 등도 기억하겠지만,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이 된 토스카나 지방의 피렌체 전경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변화한 첨단 거리도 없고, 도시 전체를 차로 도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작은 도시지만, 르네상스의 잔영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피렌체 동남쪽의 작은 언덕에 위치한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보는 피렌체의 전경, 그리고 두오모(Duomo)와 조토의 종탑(Giotto's Bell



1 현대적인 건물들로 이루어진 라데팡스에 자리한 조형물. 강한 레드 색채 덕분에 재미를 더한다. 2 프랑스 파리 신도시 라데팡스 전경 3 색채를 내외관에 기능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퐁피두 센터. 4 르네상스의 본고장인 피렌체의 전경. 붉은색 지붕으로 뒤덮힌 모습이 아름답다. 5 푸르른 지중해와 화이트 벽, 그리고 블루 지붕으로 이루어진 집과의 절묘한 조화.

Tower)에 위치한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붉은색 지붕으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 특히 석양이 질 때 보면 마치 도시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붕의 색이나 구조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토스카나의 또 다른 대표적인 곳인 시에나 역시 붉은색의 도시다. '시에나 색'이라는 말로 도시의 붉은색을 지칭할 정도로 이제는 고유한 색으로 인식될 정도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섬들은 화이트를 널리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섬이 있다. 섬 전체가 통일된 색채 덕분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며, 언덕에 위치한 집들은 푸른 바다와 하늘을 가진 산토리니섬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강렬한 햇빛 속에 밝게 빛나는 화이트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평온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트는 강한 태양빛에 반사율이 높고 열 흡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그 외에 베이지색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지중해의 섬을 상징하는 것으로 맑은 바다와 화이트 벽으로 이루어진 집, 그리고 파란 지붕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도시 환경의 개혁, 색채에 대한 관심 높아져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내의 여러 도시에서도 도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공공 디자인과 색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 서울시가 도시 고유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서울의 상징색으로 '단청 빨간색'을, 서울의 기조색으로 '한강 은백색'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현상색

250색, 서울 지역색 50색, 서울 대표색 10색 등을 서울 전역에 걸친 9800여 컷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공공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6개 분야에서 12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공 디자인 자문단을 만들었고,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지역과 종류에 따라 옥외 광고물에 적합한 색채 60가지, 건축물과 교량 등 시설물에 적합한 색채 60가지를 선정했다. 부산시는 '바다도시 부산만의 개성과 특색 있는 이미지를 색채를 통해 표현하기 위해 최근 '도시색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지난 7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경관기획단'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간판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지역 간판을 살펴보면, 통일성과 조화로운 모습보다는 좀더 크고 화려하게만 들어 눈에 띄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함을 알 수 있다. 광진구 노유거리와 종로구 1~6가에 이르는 32개 동에서 지역 상인들을 설득하고 각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거리 전체의 간판을 바꾸는 등 간판 정비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살리면서 건물의 주조색 및 보도색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점차 우리만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고 지역성이 돋보이는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색채의 중요성을 도시 환경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아름다운 도시 환경으로 가보고 싶은 거리,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어 많은 관광 수입과 도시 마케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